

초기 애독자의 자발적 독서 행동 양상 분석 — 7세 해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영 서울길동초등학교 교사(제1저자)

최영인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81회 학술대회(2024.04.20.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이진영(2024)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 I. 서론
- II. 애독자의 개념과 특성
- III. 연구 방법
- IV. 초기 애독자의 자발적 독서 행동 양상
- V. 결론

I. 서론

우리 삶에서 독서 행위를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중요한 정의적 특성은 내재적 동기이다. 무언가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그 무언가-활동 혹은 행동-를 자발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 동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윤준채·이형래, 2007). 낮은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낮은 독서 동기의 결과가 ‘자발적 비독자’로의 전환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독서 동기가 낮았던 학생들은 독서 동기가 높았던 학생들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도 애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이순영·김주환, 2022). 독서를 갖 시작하는 시기에 형성된 독서 동기 수준이 중·고등학교 시기 입시 공부와 같은 환경적 방해 요인으로 인하여 독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지난 후, 다시 애독자로 회귀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학령 초기 독서 경험이 이후 생애 전반의 독서 동기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의 초기 독서 경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읽기 능력 발달 과정에서 책을 좋아하고 애독자로 성

장하는 아동들의 초기 독서 경험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학교 도서관, 지역 도서관, 전자도서관 등 아동을 둘러싼 문식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발생적 문식성에 대한 이해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독서 환경과 지원의 질도 현저히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책 읽기를 선택하는 아동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적어지고 있다(이순영, 2021). 많은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독서의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있고, 독서에 필요한 능력, 동기 및 흥미, 독자 정체성 등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이제 독서를 촉진하기 위해 구축된 환경들 속에서 독서를 하는 개별 아동 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만 7세(초등 2학년) 애독자 아동의 학교 밖 자발적 독서 경험에 관한 기술(description)이다. 책을 읽는 아동은 오롯이 한 개인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가정, 학교, 공동체의 영향 그리고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이다. 독서 경험은 사람이 책을 읽는 경험을 뜻하는 말이지만, 독자와 그 독자의 독서 경험을 단순히 수치화하는 대신 사회적 존재인 독자가 독서를 경험하는 행위 전반에 걸쳐진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직관하고 맥락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현상학적 태도가 필수적이다(조용환·옥일남·박윤경·신현정·강경숙·홍덕기 외, 2022: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 기초한 현상학적 태도에 근거하여 초기 애독자¹⁾의 독서 경험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체 연구는 초기 애독자를 관찰하여 그 행위 양상적 특성을 분석한 부분과 그에 작용한 요인을 탐색하는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²⁾ 즉, 초기 애독자가 책을 읽을 때, 언제 그리고

-
-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기 애독자’는 독자 발달 단계상 초기 독자 중 애독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독자를 가리킨다. 애독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II 장에서 상술했었다.
 - 2)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고 행위 양상과 거기에 작용하는 요인을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기 애독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바 초기 애독자의 독서 행위 양상의 특성을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 행위 양상에 작용하는 요인들

어디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애독자의 개념과 특성

1. 애독자의 개념

독자를 유형별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의 기준은 자발성, 독서량, 독서 빈도, 독서 능력 등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구분 기준들은 각 요소가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이순영, 2019). 예를 들어 독서 동기가 높은 독자는 자발성이 강하고, 따라서 독서 빈도가 높아 독서량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독서 속성이 서로에게 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 반대로 과제나 시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독서를 하는 학생들처럼 특정 상황에서 독서량이 많아지는 경우,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독서를 좋아하지 않고 자발성도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독자’를 지칭하는 스펙트럼에는 다양한 상황의 독자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양한 독자 유형은 이를 유형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 1>과 같다(이순영, 2019).

아래 <표 1>에 따르면 독자와 비독자를 용어 중심으로 설명한 이순영(2019)에서는 애독자를 습관적 독자와 함께 긍정적 독자 유형의 최상위 스펙트럼에 놓았다. 애독자(습관적 독자)는 독서 빈도, 독서량, 독서 자발성을 모두 강하게 가진 독자로 ‘좋은 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독자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독서 능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둔 능숙한 독자 및

을 분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보고하고자 한다.

고성취 독자, 독서 자발성을 판단 기준으로 두고 스스로 자발적인 책 읽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발적 독자의 개념들도 애독자에 대한 참고 항목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애독자는 사전적 의미로 ‘책이나 잡지, 신문 따위의 글을 꾸준히 즐겨 읽는 사람’을 뜻한다. 이 사전적 의미는 독자 즉,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읽는 행위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꾸준히’와 ‘즐거’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였다. 애독자는 ① 책을 읽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행위는 ② ‘꾸준히’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③ ‘즐거’에서 의미하는 바처럼, 좋아하며 즐겁게 행해야 한다. 따라서 애독자는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갖고, 책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볼 수 있다.

〈표 1〉 독자 유형별 분류(이순영, 2019: 186)

독자 유형별 지칭 용어	주요 판단 기준	속성			
		독서 빈도	독서량	독서 능력	독서 자발성
습관적 독자, 애독자	독서 빈도	++	++		++
능숙한 독자, 고성취 독자	독서 능력			++	
자립형 독자	독서 능력			++	+
자발적 독자	독서 자발성	+			++
다독자	독서량	+	++		++
간헐적 독자	독서 빈도	-	-		
읽기 부진아, 저성취 독자	독서 능력			-	
비독자	독서 빈도	-			
책맹	독서 자발성			+	-
문맹	독서 능력	-	-	-	

++ 해당 속성이 강하게 존재, + 있음, - 부족, - 매우 없음

애독자와 의미역이 유사한 용어로는 평생 독자, 향유 독자 등이 있다. 평생 독자(lifelong reader)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는 독자 상이며,³⁾ 독서 능력과 습관, 태도와 의지, 활용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독자’이다(정옥년, 2017: 40). 이는 평생 독자의 ‘평생’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전 생애에 걸쳐 독서로서의 ‘성장’을 강조한 개념이다. 이는 독서를 ‘교육’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가르치기에 적당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 그리고 학교 교육과 함께 독자 발달이 완료된다는 통념을 깨는 개념으로 전 생애에 걸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실천, 활용할 수 있는 독자를 의미한다.

향유 독자는 독서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몰입하고 즐기는 사람이다(오윤주, 2019). 지금까지의 독서 교육이 독서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능숙한 독자(fluent reader)’를 기르기 위해 애써왔으며, 상대적으로 자발적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능동적인 독자(active reader)’를 기르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이삼형, 2013)는 비판에 따라 단순히 능숙하게 잘 읽는 독자가 아닌, 독서 동기를 갖추고 스스로 독서를 즐기는 독자를 기르기 위해 독서 자발성의 측면에서 독서 향유의 태도와 자질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이며, 향유 독자는 특히 자발성을 일으키는 독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독자를 의미한다(백희정, 2022).

애독자는 긍정적 독서 습관을 갖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며 독서 동기가 높다는 점 등에서 평생 독자와 향유 독자와 공통적 속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애독자에게 높은 독서 능력을 필수 속성으로 기대하지는 않으며, 애독자 중 일부가 독서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몰입에 이를 수 있지만 모든 애독자가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애독자로서의 정체

3) 우리나라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작문과목 성격 및 목표 중 독서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3) 평생 독자 및 평생 필자로서의 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문어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문어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성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될 경우 평생 독자의 정체성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애독자 중 일부는 향유 독자로서 내재적 동기에 기반하여 독서 행위를 수행하지만 일부는 보다 실용적 목표나 가치를 위해 독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2. 애독자의 특성

사람들은 각자 애독자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책벌레, 독서광, 장서 수집가 등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자체의 내포된 긍·부정적 이미지의 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어휘들에 대한 공통적인 함의는 책을 ‘많이’ 읽고, ‘끊임없이’ 읽는다는 독서량과 빈도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애독자를 판별하기 위한 주요 속성으로는 독서량 같은 관찰 가능한 변인 외에 독서 동기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1) 독서 빈도 및 독서량

애독자를 떠올릴 때 그 특성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독서를 자주, 꾸준히 한다는 점일 것이다. ‘자주’, ‘꾸준히’와 같은 주관적 용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를 살펴보자면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으로 조사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는 연 1회 이상의 독서 여부로 독자, 비독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독자를 독서 빈도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면 몇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를 간헐적 독자, 일주일에 몇 번 읽거나 매일 읽는 독자를 습관적 독자(애독자)로 분류할 수 있다(김은하·이태문, 2015). 또한 독자 개발 연구(이순영, 2021)에서는 주 1회 이상 독서하는 독자를 애독자로 분류한다. 즉 독서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라는 빈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매일 혹은 1주일에 1회 이상 시행하는 독자를 애독자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이때 애독자의 특성은 ‘습관적

독자'라는 명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 빈도와 상관성이 높은 또 다른 지표는 독서량이다. 독서량은 단순히 독자가 읽는 텍스트의 양(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텍스트의 난이도나 책의 두께에 따라 독자의 독서 행위 중 일부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오규설·김혜정, 2021). 입문기 독자가 읽는 그림책이나 얇은 이야기책에 비해 책의 두께가 매우 두껍거나 읽기 난해한 내용의 텍스트는 완독하는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서 '시간'이나 도서관 '이용 시간'을 포함하기도 한다(오규설·김혜정, 2021). 국민 독서 실태 조사는 독서량을 1년간 읽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포함한 초등학생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73.2권으로, 월별로 환산하면 약 6.1권이다.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량이 많았으며, 비독자를 제외한 독서자의 수치는 73.3권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독서자의 종합 독서량은 103.9권에 달한다. 월별로 환산하면 8.7권으로 비독자를 제외한 독서자의 경우 매주 2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는 셈이다. 애독자의 독서량을 수치화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독서자들의 평균 독서량을 통해 애독자의 독서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2) 독서 동기: 독서 자발성

자발성은 주체가 실천하는 '행위'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마음가짐이나 태도로 대변되는 정의적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독서에 대한 독자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독서 행위를 통해 역으로 추정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관찰 가능한 주체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기에 행위의 예견 인자라고 볼 수 있다(김혜정·허모아, 2021). 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는 행위 결과적 양상을 표현하는 독서 자발성이라는 용어는 독서의 실천 행위와 더불어 독서에 대한 독자의 동기와 태도 등 내적 요인을 함께 포

괄하는 용어이다. 특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 않기를 선택’하는 비독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독서 세대 속에서 더욱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이지영, 2019).

일반적으로 독서 동기는 읽기를 추동하는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그 주체가 왜 읽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속성과, 얼마나 읽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강도를 설명하는 수준 속성을 지닌다(박성석·허모아·제민경, 2021). 인간의 행동을 외부적 상황 맥락과 개인 내적 심리 욕구의 역동적 관계에 의한 결과로 분석하며, 기존의 다양한 심리적 동기 이론을 종합했다고 평가받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이하 STD)에서는 인간의 동기를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여섯 가지의 형태로 설명하였다(Ryan & Deci, 2000).

본고에서 애독자의 자발적 독서 선택에 주목하는바, STD 이론의 자기결정성의 작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SDT의 관점에서 동기 상태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데, 그 경험을 하는 중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동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 내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주입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외적 조절(extrinsic regulation), 무조절(non-regulation)의 동기 유형이 연속체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STD에 기반하여 독서 동기를 살펴보자면⁴⁾ 애독자의 독서 동기는 독서 자체의 재미나 즐거움, 호기심 등을 이유로 책을 읽는 ‘내적 조절’,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 읽으려 하는 ‘통합된 조절’, 타인들이 말하는 독서

4) STD의 관점에서 읽기 동기를 재해석하는 연구들(박성석·민병곤, 2020; 이병기, 2015)이 제안된 바 있고 박성석 외(2021)에서는 자기결정적 독서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박성석 외(2021: 237)의 문항 개발 틀 내에서 ‘구인의 내용’ 및 ‘읽기에 대한 느낌’을 참조하여 애독자의 독서 동기 유형을 설명하였다.

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여 독서를 하는 ‘확인된 조절’ 세 유형 중 하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연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참여 관찰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참여자 애독자 아동 김해윤(가명)은 2015년 10월생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이다. 해윤의 애독자 특성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하루를 독서로 시작하여 독서로 마무리하는 일상을 보내며 독서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평소 자발적 자립 독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동으로 연령과 애독자 특성을 함께 갖추었다.

연구참여자 해윤은 연구진 중 1명의 자녀이기도 하다. 연구의 초기 설계에서는 초기 애독자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 2~3명을 동시에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애독자들의 독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그 장면을 제대로 포착하여 관찰하기 위해서는 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 관찰을 하는 연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2인의 경력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1은 연구참여자 해윤을 관찰한 연구자이며, 해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력 17년차의 초등학교 교사이다. 교직 경력 14년차에 서울교육대학교 아동문학·독서논술 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는데, 서울시 교육청 연구 파견 과정으로 선발 및 진학하여 전일제 연구 대학원생으로 수학하는 동안 독서교육 및 연구 방법 관련하여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였다.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초등 교사로 재직하며 초등

현장에서부터 학습자들의 독서 동기 진작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독서 관련 지도 활동을 구안하고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하여 책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과정 전체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독서 캠프 진행 및 한 학기 한 권 읽기 현장 연구팀 운영 등에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독서 교육 관련 현장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석사과정 2학기인 2022년 가을부터 애독자 연구 및 참여 관찰 연구로 연구의 주제 및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연구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참여 관찰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탐독하며 연구자로서의 전문성도 확보하였다.

다음은 연구자1의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초등학생 자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연구자1은 ‘책을 읽는 사람은 정도(正道)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모의 가르침과 독서 지원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그 자양분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관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신도 자녀에게 독서 활동과 관련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 왔다. 거실을 서재로 만들고 유아기부터 무릎 독서,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실천하는 등 독서를 권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자녀들이 독서를 하나의 숙제나 의무 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녀들의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하면서도 독서가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원칙들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1의 가정에서는 각자 해야 할 일을 끝내기 전에는 독서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또 자녀들에게 생일이나 어린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선물로 평소 사고 싶었던 책을 고르게 해주는 방법으로 책을 긍정적 보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2는 연구자1의 지도교수로, 연구자1이 입학한 직후부터 해운 자매의 독서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개별 아동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독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자2는 참여 관찰 연구를 직접 수행해 본 적은 없지만, 특정한 학습자를 집중적으로 만나거나(최영인, 2014), 일정한 주기로 여러 번 만나 그들

의 언어 능력의 변화나 동기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도한 경험(김성혜·양수연·최영인, 2023 외)이 다수 있어 연구자1과 아동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를 공동 기획·진행할 때 기여할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2는 학습자들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주목하여 학습자들의 행동 및 동기, 성취 등이 심층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최영인·홍선주·박재현, 2019; 홍선주·최영인·안지연, 2024).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엄청난 양의 책을 즐겨 읽는 애독자의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주제를 초점화하였고,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연구 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의 정리 방식 및 의미화 과정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설명이다. 해윤이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로 1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다. 해윤이는 평소 어디를 가든 가방에 스스로 고른 책을 넣어 다니는 습관이 있으며, 태블릿을 통한 전자책 독서도 활발하게 하는 아동이다. 해윤이의 독서 활동과 관련하여 평소 해윤의 부모는 해윤에게 독서할 것을 지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 달에 1~2회 정도 지역 도서관에 함께 가서 책을 읽고 대여해 온다. 외조부모는 해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해윤과 언니를 서점에 데려가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골라 구입할 기회를 준다. 해윤의 집에는 거실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으며, 각 방마다 아동용 책꽂이가 있는 등 아동용 책이 3,000권 이상 구비되어 있는 환경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해윤은 현재 개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주말에만 유튜브 시청과 게임에 대해 각각 30분씩 일주일에 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규칙을 정하고, 약속 범위 내에서 부모가 시간을 엄격하게 강제하기보다 해윤이 스스로 알람을 맞춰 자율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는 편이다. 만들기나 춤추기와 같은 취미 활동을 위해 유튜브를 보는 것은 평일에도 30분 정도 허용되고 있다.

〈표 2〉 해윤이의 학기 중 하교 후 일정표 (2023년 2학기 기준)

요일	월	화	수	목	금	주말
하교 후 활동	방송 댄스 (학교방과후)	미술학원 줄넘기학원	음악줄넘기 (학교방과후)	미술학원 줄넘기학원	미술학원	자유 시간
학원 종료 시간	오후 2:30	오후 4:30	오후 2:30	오후 4:30	오후 3:00	
귀가 시간	오후 4~5시 전후 이후 가정 온라인 학습(1시간) 외 자유 시간					

해윤의 학교에서는 자체 제작한 공식 독후활동 교재를 배부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에 그 수를 세어 시상하고 있다. 해윤의 담임교사는 매일 아침 학교에서 10분 독서, 매일 저녁 가정에서 30분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자신의 독서 내용을 매일 기록하여 짝과 부모님께 검사받도록 하는 독서 기록 과제를 매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담임교사는 매주 학급 학생들이 인솔하여 학교 도서관을 방문하는 등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기간 동안 해윤이는 가정에서 타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자발적 독자의 모습을 보였다. 시간면에서 매일 등교 전 10분, 하교 후 60분 이상, 독서량으로는 3~6학년용(알라딘 인터넷 서점)으로 분류되는 100쪽 이상의 창작 동화를 매일 최소 1권, 그림책의 경우 최소 5권 이상 읽었다. 전자책의 경우 100권을 읽는데 방학 중에는 18일(2023년 8월 기준), 학기 중에는 36일(2023년 9~10월 기준)이 걸렸다.

독서 태도 및 독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해윤이는 스스로 책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며, 무인도에 가져갈 물건 5가지 중 첫 번째가 책이라고 밝혔다. 태블릿만 가지고 떠난 3주짜리 가족 여행에서 해윤은 전자책으로만 독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종이책이 너무 읽고 싶은 독서 금단 증상을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독서 빈도, 태도, 동기 등의 요소를 통틀어 해윤이를 ‘초기 애독자’로 지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참여 관찰 연구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애독자가 어떤 양상으로 자발적 독서를 실행하고 그 경험에서 어떤 정서적 반응을 얻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찰 결과 확인을 위해 심층 면담을 함께 활용하였다.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관찰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 함께 들어가서 관찰하는 특별한 관찰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관찰 상황 속에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행위를 가능한 밀접하게 공유한다(김이영, 2000: 67). 이후 연구자가 가진 질문과 관심사 등 관찰을 목적을 가지고 면담, 인공물 수집, 현장 기록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특히 관찰을 위한 연구자의 현장 참여 수준 결정은 참여 관찰의 핵심적 논점이다(곽노의·김도이·임은정, 2011: 156). 본 연구에서는 Patton(1987)의 관찰자 역할 차원에 따라 ‘부분적 관찰’ 및 ‘완전한 설명’을 통한 ‘공개적 관찰’, 9개월에 걸친 장기적, 복수 관찰을 시행하였다.⁵⁾ 연구 설계 초기, 연구 목적을 위해 아동의 독서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자연적 상황 관찰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아동과 연구자 본인과의 관계상 참여자 아동에게 참여자의 관찰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연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관찰이 시작되면서 독서 행위에 대한 비개입적, 자연적 관찰은 가능하였으나, 독서와 관련한 활동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 아동의 부모로서 참여 아동의 질문에 답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연령상의 제약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관찰하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하였고, 관찰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 관찰이 이루어졌다.

5) Patton(1987)의 질적 연구 관찰자 역할 규정 연속선 ‘관찰 연구에서 변화 가능한 다섯 가지 차원’을 참조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참여 관찰은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행동을 내밀하게 관찰해야 하므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의 자녀로 라포 형성에 대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 연구에 대한 목적과 관찰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참여자의 자연스러운 독서 양상에 대하여 참여 관찰을 실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평소에 연구자의 공부 및 연구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참여 관찰 연구를 제안하였을 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연구 목적 및 방법 등을 설명했을 때 해윤은 자신을 관찰하거나 면담한 내용을 원할 때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 요청을 수락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후 자신의 독서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면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참여 관찰은 2023년 3월에서 2023년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었다.⁶⁾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상 학교나 학원 시간 외의 자유 활동 시간을 장소에 제약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시간과 장소 상의 별다른 제한 사항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와 함께 하는 시간 중 평일 1회, 주말 1회를 기본으로 관찰하였다. 참여 관찰은 연구참여자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을 관찰 시간으로 두고, 연구참여자의 독서 관련 행위가 관찰될 때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1~3회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의 관찰 행위에 별다른 심리적 저항이나 물리적 방해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생활 중 가정 내에서의 관찰은 대부분 에피소드의 발생 직후 컴퓨터로 즉시 기록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즉시 기록이 힘든 경우도 당일을 넘겨 기록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원할 때는 기록을 확인시켜주었고, 때때로 연구참여자가 기록

6) 연구 자료 수집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만 7.05세에서 만 8.01세였다.

하기를 원하지 않는 에피소드의 경우 관찰 기록을 삭제하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발화를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경우 논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필요 시 녹음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천히, 또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 관찰 기간 중 총 86회(일)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참여 관찰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 참여 관찰 과정 기록(일부만 제시)

구분	관찰 일시	시간	장소	주요 사건/대화 주제
1	3. 6.(월)	밤	집	대출해 온 책 소개하기
2	3. 7.(화)	아침	집	충분한 독서 시간에 대한 욕구
		저녁	집	취침 시간과 독서 욕구 갈등
3	3. 8.(수)	아침	집	독후 활동과 자유 독서의 구분
		밤	집	독서록 쓰기에 대한 생각
4	3. 9.(목)	아침	집	아침 기상 후 독서 양상
		저녁	집	밥에 관한 독서 경험 대화
5	3. 10.(금)	저녁	집	언니와 독서 서평 나누기
				책을 선택하는 방법
6	3. 11.(토)	오후	키즈카페	책에 대한 관심 표현, 독서 욕구
		저녁	식당	친구 엄마에게 독서 활동 소개
7	3. 12.(일)	아침	집	자발적 독후 활동: 책 만들기
		오후	집	자발적 독후 활동: 오디오북 녹음
8	3. 14.(화)	아침	집	언니와 독서 서평 나누기
		저녁	집	반복 독서, 어휘 확장

본 연구는 참여 관찰을 통해 학령 초기의 애독자 아동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책을 읽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서에 대한 아동의 다양한 감정적, 언어적, 행동적 반응 및 독서 경험의 양상을 자세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반응 및 관찰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일상 면접 및 심층 면접도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갖게 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 형태로 풀어가므로 면담은 참여 관찰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조용환, 1999; 이송희, 2017: 30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가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답변하기 쉽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대신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후 자료의 분석을 위해 작성된 관찰 일지 및 면담 전사 자료를 현상학적으로 성찰, 여러 차례 정독하고, 떠오르는 핵심어들을 범주로 선정하는 개방 코딩(김영천, 2012)을 거쳤다. 어떤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연구참여자가 그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관찰자이자 해석자 역할을 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세계에 공감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며 연구참여자의 행동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고, 그 행동과 맥락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의도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과정으로, 현상을 이해하거나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이나 맥락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Hsieh & Shannon, 2005; 정혜승, 2014: 253 재인용).

IV. 초기 애독자의 자발적 독서 행동 양상

1. 언제, 어디서 읽는가: 생활 습관과 독서의 연결

해윤이를 관찰하면서 그의 독서 공간, 시간 등에 따른 독서 양상을 분석한 결과 매일의 생활 습관과 연결된 패턴화된 독서,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독서 시공간을 탐색하여 그곳에서의 독서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하루 일과 중에 책을 읽는 시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그 시간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의 연결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독서가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해윤이의 일상적 독서에서 나타난 일정한 패턴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나와 책꽂이 앞 의자에 앉아 책이나 태블릿을 든다. 5분 정도 짧은 글을 읽고 난 후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영어 학습을 한다. 식사가 끝나고 양치를 시작하기 위해 칫솔을 입에 물면 책꽂이에서 책을 빼거나, 전자책을 검색하는 것으로 자발적 아침 독서를 실행한다. 이렇게 시작된 독서는 학교에 가기 전까지 이어지거나, 책가방에 넣어 학교 아침 독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저녁 시간에 언니와 둘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윤이 자매는 거의 예외 없이 각자의 태블릿을 식탁에 올려두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샤워 후에는 책꽂이 앞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다. 이때 시간은 느긋하게 자기 전까지 이어질 때도 있고, 숙제나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대략 20분 전후(1권을 완독하는 시간)로 끝난다. 자기 전 양치 시간에도 아침 양치 시간과 비슷한 양상이 반복된다. 양치와 식사, 샤워 행위와 독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⁷⁾

7) 이하 참여 관찰 일지에서 밑줄 표시는 강조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7월 26일 참여 관찰 일지]

엄마: 해윤아, 학원 갈 준비 해야지. 양치하자.

해윤: 응. (대답하면서 책꽂이로 가서 책을 고르고 손에 든 채로 칫솔을 가지러 간다.

거실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무릎에 책을 펴고 보면서 한 손으로 양치를 한다.)

엄마: 양치질하면 책이 생각나?

해윤: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

엄마: 그냥 양치에만 집중할 수 없어?

해윤: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가로짓는다. 칫솔을 물고 웅얼거리며 답한다.)

양치하려고 하면 그냥 책이 읽고 싶어.

[11월 3일 참여 관찰 일지]

엄마: 칫솔질 꼼꼼하게 해.

(엄마 목소리에 10초 정도 손이 빨라지지만, 시선은 태블릿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칫솔이 느려진다. 칫솔을 입에 물고 오른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칫솔질이 멈춘다. 10초 정도 후 다시 물고 있던 칫솔을 인식하고 칫솔질을 하다가 페이지 전환할 때 다시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 언니와 엄마의 대화 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태블릿을 들고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 왼손에 태블릿을 든 채, 한 손으로 양치를 끝낸다. 양치 후에 태블릿 화면에 묻은 물을 수건으로 닦고 식탁에 올려둔 채 눈을 화면에 고정하고 잠옷을 벗기 시작한다. 벗은 잠옷은 팔에 걸쳐져 있다. 선 채로 심각하게 계속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언니가 움직이는 소리에 다시 시계를 확인한다. 8시 18분이다.

해윤이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놓인 옷을 입으면서 계속 태블릿을 본다. 머리를 빗어달라며 엄마 앞에 앉을 때까지 태블릿은 손에 계속 들고 있다. 머리를 빗는 와중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해윤: 아! 다음 책! 없나?

해윤이에게 양치하는 3분은 생각보다 지루한 시간이다. 특히 유아기 시절, 잠자기 전 양치는 아빠가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치 시간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만 5세 경 한글 해독 후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빠 무릎에 누워 양치하는 동안 스스로 독서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반복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양치가 책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해윤이의 생활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오윤주(2019)가 독서 향유자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독서 향유자들은 ‘책과 관련된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는 과정(오윤주, 2019: 236)이 있다. 해윤이가 “양치하려고 하면 그냥 책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양치에 대한 습관적 독서 반응은 초기 애독자에게 삶의 일부가 된 독서 현상일 것이다.

해윤에게 양치와 비슷한 활동 중 하나가 머리를 빗는 시간이다. 해윤이는 양치 시간처럼 가만히 앉아 머리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간을 독서라는 정적이지만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극복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3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 보듯이 양치로 시작된 독서는 옷 갈아입기, 머리 빗기, 양말 신기 등 등교 준비를 하는 내내 이어진다. 5분 이내의 짧은 양치 시간에 읽고 있던 책을 완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후에도 옷 입기, 머리 빗기와 같은 다른 일상 활동과 함께 계속 이어지거나, 이것으로도 완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읽던 책을 가방 속에 넣어가서 교실 아침 독서 활동 시간에 계속하였다.

해윤이가 책을 떠올리고 독서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양치질, 머리 빗기와 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서 또한 양치, 샤워와 함께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 양상을 띤다. 이렇게 시작되는 독서는 독서의 계기가 된 실제 양치 행위나 머리 빗기가 끝나도 이야기의 힘에 이끌려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독서를 실행하게 하면서 독서 시간과 양이 차츰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해윤의 습관은 책이 재미있거나, 책이 좋다는 감정적 판단 이전에 양치와 독서가 하나의 단계별 과정으로 묶인 실천적 행동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은 책을 좋아하는 감정과 책을 읽는 행위의 실천 간 구분을 지적하며, 독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유용

한 독서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한다혜·이국희(2021)의 연구와 맞닿아 있다. 해윤이가 생활 습관과 독서를 연결시키는 양상은 ‘양치하면 그냥 책이 떠오른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반응이자 습관적 실천 행위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해윤이의 일상적 독서에서 나타난 패턴 중 하나는 자신이 가장 만족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독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윤이는 샤워 ‘후’, 잠들기 ‘전’과 같이 해윤이가 좋아하는 독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좋아하는 독서 공간은 거실인데, 주로 샤워 후 잠들기 전까지 거실 의자에서 혹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책 읽기를 즐긴다. 샤워 후 잠들기 전 시간 독서 활동은 관찰 기간 동안 아침 양치 시간과 함께 빠짐없이 거의 매번 관찰되었다. 해윤이는 좋아하는 독서 시간에 대해 “아침에는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읽고 싶은 책을 도중에 그만 읽어야 할 때가 많지만 밤에는 샤워 후 젖은 머리를 말릴 시간도 필요하고 느긋하게 읽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11월 2일 참여 관찰 일지]

(해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을 쓰고 거실 책꽂이 앞 의자에 털썩 앉는다. 자연스럽게 휘휘 둘러보다가 책을 한 권 집으며 물어본다.)

해윤: 엄마, 하하자매 떡집 못 봤어?

엄마: 거기 없어?

해윤: 안 보여. 일단 이거 읽어야겠다.

엄마: 이리 와. 머리 말리게.

(해윤이 책을 들고 엄마 앞에 앉는다. 드라이기가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와중에도 묵묵히 책을 읽고 있다.)

[11월 7일 참여 관찰 일지]

해윤: 엄마, 나 오늘 할 거 다 끝낸 거 맞지? 이제 방에 들어간다.

엄마: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해윤: 뭐 하긴. 내가 내 침대에서 책 읽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잠들 책 읽을 거
야. 침대에 엎드려서 책 읽으면 진짜 좋아. 들어간다. 안녕.

백희정(2022), 오윤주(2019) 등의 성인 향유독자 연구에서는 이미 성인이 된 향유 독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독서를 위한 최적의 시공간을 만든다’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해윤이는 성인 향유 독자들의 특성을 기초적이지만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추어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해윤은 샤워 후 몸이 나른해지고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밤 시간에 책을 들고 좋아하는 의자에 앉거나 거실에 엎드리는 편안한 자세로 독서를 한다. [11월 7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 보듯 해윤이는 침대용 스탠드가 생긴 후, 여유 시간이 생기면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만족스러운 공간과 상황’을 찾아서 책을 읽으라는 향유 독자 이동진(2017)의 독서추천법을 해윤이는 자립 독서를 시작하는 시기에 이미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다.

이상의 해윤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자의 주체성은 읽을 책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를 직접 실행하는 ‘시공간에 대한 선택’에서도 주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이 한 명의 주체적 독자로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고 싶은 시간과 공간에서 읽는 ‘만족스러운 독서 경험’이 자신의 생활 속에 독서를 습관화하고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확고한 기준에 기반한 자기 선택적 독서

모든 독자에게 그러하듯 해윤이에게도 독서의 시작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초기 독자들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보다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의 추천을 따르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만나는 책을 선택하기도 한다. 해윤이도 그런 추천이나,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는 장면 등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신이 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나 줄거리를 살펴본 후에 그 책을 더 읽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해윤은 책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선택사항이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 선택지들을 꼼꼼히 비교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며, 부모는 해윤이의 성격에 대해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해윤의 성격은 독서의 시작 장면인 읽을 책 고르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해윤이는 읽을 책을 고를 때, 부모와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에도 소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며 독자 주체성을 발휘했다. 특히 2~3주에 한 번 정도 가족과 함께 가는 도서관에서 해윤은 항상 자기 몫의 책을 골라 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가끔 함께 도서관에 가는 것이 귀찮다며 혼자 집에 남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책 제목이나 시리즈를 종이에 직접 적어서 다른 가족에게 건네며 대출해 올 책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3월 19일 참여 관찰 일지]

(주말에 해윤이 가족이 함께 집 근처 도서관에 방문했다. 어린이실에 도착하자마자 해윤이는 성큼성큼 자신이 원하는 책이 있는 서가로 걸어가서 책을 1권 고르고 대출실 테이블에 앉는다. 꼼짝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1권을 읽는데 20분 정도 소요된다.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덮으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도서관 대출 카드를 요구한다.)

해윤: 엄마, 나 책 빌릴 거야. 카드 줘. 내 이름으로는 내가 빌릴 거야. 다른 사람 건 안 돼.

엄마: 좀 같이 빌리면 되지.

해윤: 안 돼. 그럼 내가 빌리고 싶은 거 못 빌릴 수도 있잖아.

[4월 8일 참여 관찰 일지]

(전략) (도서관에서 고른 책 1권을 다 읽고 나자 해윤이 아빠에게 회원증 바코드 화

면을 꺼달라고 요구한다.)

해운: 아빠, 나 핸드폰에서 바코드 좀 열어줘. 대출하게.

아빠: 이따 한꺼번에 안 하고?

해운: 안 돼. 엄마가 이거 못 빌리게 할 수도 있어서 빨리 빌려놔야 해.

(아빠 핸드폰을 받아서 들고 간 책을 기계에서 대출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책상에 돌아와서 책 바구니에 넣는다. 테이블에 앉아 나머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책들을 마저 읽는다.)

해운이는 도서관 어린이 대출실에 도착하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작가의 책들이 꽂힌 서가로 곧장 찾아갔다. 대출 도서를 고를 때 완독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책은 다 읽었으니 이제 안 읽어.’가 아니라 ‘재미있으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볼까?’라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골랐다. 해운이는 이에 대해 “반복 독서를 하고 싶은 책, 집에서 느긋하게 읽기를 원하는 책으로 대출할 책을 고른다”라고 설명했다. [3월 19일 참여 관찰 일지]를 살펴보면 도서관 대출 권수가 정해져 있어 혹시 자기가 고르는 책들을 모두 대출할 수 없을 경우를 걱정했다. 도서관에서 해운의 독서는 ①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②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③자신이 읽고 싶은 횟수만큼 이루어졌다. ①은 해운의 책 선택에서의 주체성 발휘이며 ②는 독서량 확보에 대한 욕구, ③은 책 한 권을 읽었다는 완독에 대한 기쁨이 아닌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책을 충분히 소화하고 싶은 다회독(多回讀)에 대한 욕구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4월 8일 참여 관찰 일지]를 보면 해운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책의 권수(양)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책 선택에 대해 엄마가 지적하거나 다시 골라보라고 권할까 봐 아빠에게 대출 바코드를 엄마 몰래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엄마가 해운의 편독 현상을 걱정하여 대출 도서 목록을 지적하는 일이 해운이에게 있어서는 ‘간섭’이자 ‘방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책 선택에서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윤이의 행동은 학생의 자율적인 책 선택이 독서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김영란 외(2018)의 연구와 일치하며, 독자는 책 선택의 주체성을 가질 때 독서 활동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윤경훈·김혜연, 2021).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독서는 해윤이에게 휴식이고 즐거움이지만, 강요된 독서는 노동이고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뛰어넘을 수 있지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뛰어넘기 힘들고 괴로운 장애물이 된다. 해윤이와 같이 책 선택에서 주체성이 매우 강한 독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도서 선택이 과도할 가능성이 있다. 학습 독서를 바라는 엄마의 요구와 본인의 독서 자율성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해윤이의 독서 동기는 보상을 요구하는 외적 동기의 형태로 옮겨져 표현되었다.

[8월 27일 참여 관찰 일지]

엄마: 해윤아, 이거 언제까지 다 읽을 수 있어?

해윤: 뭐? (엄마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인상을 팍 쓴다. 짜증 내며) 아니, 나 그거 읽기 싫다고. 그냥 팔아.

엄마: 언니가 3학년 되면 사회 시간에 다 나온다잖아. 그냥 한 번만 읽고 팔면 안 될까? 아까운데?

해윤: 아, 진짜. 다 읽으면 뭐 줄 거야?

엄마: 어이가 없네. 너 책 읽는데 엄마가 뭘 줘야 해? 뭐가 필요한데?

해윤: 맛있는 거? 간식? (30권짜리 전집을 넘겨본다.)

해윤: 이거 이거 본 거야. 패드에서 이거 봤고, 이거도 봤고, 봤고.

엄마: 네네. 그럼 읽은 책은 이쪽 모서리에 꽂을게.

해윤: 그래그래. (건성으로 대답하며 책 한 권을 골라 읽기 시작한다.) 어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좀 읽으면 안 돼? 일단 엄마가 간식 사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

위에 제시된 [8월 27일 참여 관찰 일지]를 보면 해운의 엄마는 대화 시점 이전에 해운이의 배경지식을 넓혀 주기 위해 해운이가 평소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일반 사회 분야의 전집을 읽어볼 것을 제안하였다. 미래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사회 시간에 나오는 학습 개념을 다루는 책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해운은 ‘다 읽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평소에 자발적으로 독서를 즐기는 해운은 이전에 부모로부터 독서에 대한 외적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평소처럼 본인이 선택한 대로, 읽고 싶은 책만 즐겁게 읽고 싶은 해운⁸⁾에게 엄마의 강요된 독서는 부당하고 괴로운 활동이었고, 따라서 그 괴로움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해운이가 가진 활동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 즐거움, 재미를 위해 독서를 할 수 있는 내재적 동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순간 ‘외적 조절’ 즉,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을 하는 동기인 외재적 동기의 유형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다솜, 2021).

흥미로운 점은 앞서의 강요된 독서 상황에서 해운이가 결국 그 책을 ‘읽어 보기로 마음먹은 후’에 일어난다. 엄마는 30권짜리 전집을 한 번 읽어보라고만 권했을 뿐, 기한이나 독후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해운에게 책 선택의 주체성 외의 자율성은 모두 보장해 주었다. 그러자 엄마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책을 읽겠다고 결정한 해운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전집을 읽어나갔다. 해운이는 종종 두덜대면서도 한 달가량에 걸쳐 엄마가 제안한 책들을 모두 읽었다. 전집을 다 읽은 후에는 재미있는 책과 재미없는 책으로 구분하여 재미있는 책들은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읽었고, 또한 스스로 독서록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먼저 그 책들을 읽은 언니와 감상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러

8) 해운이는 평소에 책을 고를 때에도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책만 읽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책이어야 돼. 읽기 싫은 책은 안 돼.”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였다. 해운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해운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좋고, 싫음의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편이며, 매사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중시하는 독자이다.

한 해윤의 독서 행위는 외재적 보상이 개인의 자율성을 하락시키지 않은 형태로 제공된다면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함을 보여준다(김아영·오순애, 2001).

해윤이가 자신이 관심을 갖거나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앞선 관찰 내용은 해윤이가 자기 선택에 기반한 주제적 독서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 독서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해윤이기 때문에 그의 독서에서는 특정 장르, 특정 작가, 주제 등과 관련하여 편중된 독서의 양상도 나타났다. 해윤은 문학책을 좋아하고, 사실 및 정보에 기반한 책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었다. 면담 결과를 참조하면, 해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일본 작가 ‘안비루 야스코’이다. 해윤이는 그 작가의 ‘마녀 상회’ 시리즈와 ‘디저트’ 시리즈를 매우 즐겨 읽는다. 그 외에도 조앤 호럽과 수잔 윌리엄스의 ‘여신 스쿨’ 시리즈,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 이야기 책들을 무척 좋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도서관에서 해당 시리즈의 책을 반복하여 대출하고 있다. 아래 [4월 8일], [6월 25일] 관찰 일지에서는 해윤은 특정한 시리즈의 책만 반복해 빌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안비루 야스코 책만 빌리지는 말라’, ‘다양한 책을 읽어보라’는 명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대응한다. 결국 자신이 이전에 읽었으며 좋아하는 또 다른 시리즈물 중 하나인 ‘여신 스쿨’, ‘무엇이든 마녀상회’ 시리즈 중 일부를 골라 대출대 위에 올렸다.

[4월 8일 참여 관찰 일지]

해윤: 엄마, 나 내가 5권 빌릴 수 있는 거 내가 다 골라도 되지?

엄마: 근데 이거저거 빌리면 안 될까? 안비루 야스코만 너무 빌리시는 거 아니야? 여러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시리즈물만 읽는 것 같아 조금 걱정스럽다.

해윤: 아냐, 다 읽고 나면 또 다른 거 읽으면 되지. 아! 그럼 따라와 봐. (엄마를

서가로 데려간다.)

해운: 내가 좋아하는 여신스쿨 알지? 저기 제일 위에. 거기서 헤스티아 좀 내려줘.

엄마: 헤스티아? 18권? 이거 저번에 빌려서 읽었잖아. 이제 여신스쿨 재미없다
더니?

해운: 헤스티아는 재밌더라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제 이러면 안비루 야스
코만 다 빌린 거 아니지? 그치?

[6월 25일 참여 관찰 일지]

엄마: 대출할 책 다 고른 거야? 그냥 엄마가 골라온 것도 다 빌려?

해운: 응. 엄마가 고른 건 그냥 다 빌리고, 나 다른 책 있나 좀 더 보고 올게. 아
빠 따라와.

잠시 후, [여신스쿨] 2권과 [무엇이든 마녀상회] 2권을 더 들고 나온다.

엄마: 이제 안비루 야스코 책 다 읽지 않았어?

해운: 응. 한 두 권 정도 빼고 다 읽었어.

엄마: 여신스쿨도 이미 다 읽었던 거 같은데.

해운: 다시 읽고 싶어. 재밌단 말이야.

해운이는 ‘갸냥’, ‘도깨비 식당’을 비롯하여 ‘송민이의 일기’ 시리즈 등 판타지와 모험담을 주 모티브로 하는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며, 실제 초등 학생의 삶이 드러나는 문학도 두루 읽는다. 이처럼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는 ‘더 좋아하는 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작가나 주제를 많이 가리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여럿 시도해 보는 편이다. 학습 만화 장르에서는 ‘패션’, ‘사춘기’, ‘여성 위인’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여 그와 관련된 학습 만화를 선택적으로 읽는다. 이 외에 사회, 과학 분야의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적으며, 과학 분야의 책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감을 보일 정도이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독서를 실천하는 자기 선택적 독서(self-selected reading)는 독자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독서에 대한 내재적 동기 신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한국독서학회,

2021). 해윤의 경우 독서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받고 있으며, 이처럼 책 선택에 관하여 자기 선택적 독서가 가능한 상황이 해윤이의 애독자 성향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윤이가 발휘하는 높은 정도의 독서 자기 결정성이 갖는 의미는 성인의 독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독자가 독서에 빠져드는 시작으로 ‘자기 선택’을 꼽은 김효리·정옥년(202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해윤이처럼 자기가 선택한 책‘만’을 읽고 싶어 하는 아동 독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실 및 학교 독서 지도의 상황에서 도서 선정과 관련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독자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 중요하지만, 어린 시기에 그런 독서 분야나 장르와 관련하여 확고한 취향을 갖게 된 아동 독자가 일순에 스스로 ‘다양한 주제나 장르로 독서의 반경을 확장할 의지’를 갖기가 쉽지 않다. 해윤이 가정의 경우 부모뿐 아니라 언니가 문식 후원자로 함께 책을 읽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해윤이가 다른 사람의 독서 양상을 자연스럽게 지켜보거나 관찰할 기회가 있고 또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책에 대해 평가하거나 추천하는 발화가 가족 간 대화에서 오가기도 한다. 해윤이는 언니나 엄마가 읽는 책에도 관심을 보이며 그 책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묻기도 하여 향후 독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갈 가능성이 있다. 자기만의 독서 취향을 일찍 갖게 된 아동 독자에게, 다른 독자들이나 독서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독서의 주제나 장르가 협소한 상태로 고착화될 우려가 없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 어떻게 읽는가: 반복적·심층적 독서

해윤이의 독서 행위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양상은 한 권의 책을 한 번만 읽지 않고 다회독(多回讀)을 한다는 점이다. 이때의 반복 빈도는 두세 번에

그치지 않고 10회 내외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해윤이는 어떤 책을 한 번 읽은 후 좋은 책 혹은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한 책은 두고두고 다시 읽으며 책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고 즐긴다. 앞서 도서관에서 대여할 책을 고르는 기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해윤이는 자기가 완독한 책의 권수나 분량보다는 어떤 책을 깊이 읽고 충분히 소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해윤이의 독서 시간 자체가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래 아동보다 읽는 책의 권수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독서 시간당 독서량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해윤이는 아동용 책이 가득 꽂힌 거실 책꽂이 내에 자신만의 ‘한 칸’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한 칸에는 대략 30~40권 정도의 책이 꽂히는데, 이때 들고나는 책에 대한 결정은 해윤이 내리며 그 결정에 대해 신중한 편이다. 이는 자신만의 서재를 꾸미는 독서향유자들의 행위(오윤주, 2019)와 유사한데, 해윤이는 자신이 한 권, 한 권 직접 선별해서 꽂은 책꽂이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는다고 밝혔다. 선택된 도서를 반복하여 읽는 행위는 애독자인 해윤이 보이는 독서 양상 가운데 자신만의 독서 향유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반복 독서는 책 한 권의 내용이 통째로 머릿속에 복사된다(아마구치, 2015)고 표현할 만큼 내용에 대한 학습 효과가 뛰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해윤은 그 책을 학습 목적으로 읽지 않지만, 책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만큼 반복하여 읽는다. 이러한 반복 독서는 꼼꼼한 읽기(close reading)로 이어진다. 꼼꼼한 읽기는 “독자가 주의를 집중하여 텍스트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하여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심도깊게 이해하는 정교한 읽기(이순영, 2015: 49)”로 해윤은 꼼꼼하게 읽기 중 특히 ‘주의를 집중하여 텍스트 정보 확인하기’ 방법을 통하여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복 독서가 거듭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어휘를 새로 익히거나, 이전 독서에서 생겼던 질문을 다음 독서 시 집중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한두 번 읽을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작가의 세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림이나 내용 단서들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3월 14일 참여 관찰 일지]

해운: 이 책 그때 나 문제집 다 해서 엄마가 사준 거. 너무 재밌어서 10번도 넘게 읽은 거 같아. 그런데 봐봐. 2권, 3권에 같은 그림이 있지? 내가 찾았어. 신기하지? ...(중략)...

해운: .(해운이 캐릭터 설명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중략)... 중재를 맡고 있으며, 공처가임. 엄마, 중재가 뭐지?

엄마: 싸우거나 하면 가운데서 조정해 주는 거.

해운: 아! 여기야, 여기. 딱 그 장면이 나와. (책을 넘기더니 두 인물이 으르렁거리는데 가운데에서 다른 인물이 둘을 서로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을 찾아 보여준다.)

해운: 그럼 공처가는 뭔데?

엄마: 뭐일 것 같은데? (... 중략...)

엄마: 1번, 공부 잘하는 사람. 2번, 공 잘 차는 사람. 3번,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

해운: 3번이네. ○○가 부인 말 진짜 잘 들어. 여기 봐봐. (해운이 책을 넘겨서 인물이 아내와 같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펼쳐서 보여준다.)

[3월 14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 해운은 이미 10번도 넘게 읽은 책을 다시 읽고 있었다. 그 책은 ‘호랑이 들어와요’라는 제목의 웹툰 만화책으로, 삼촌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읽은 후 흥미를 보이며 그 책을 반복적으로 읽고 있었다. 책을 여러 번 읽었으므로 인물들의 특성이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3월 14일 그 책을 다시 넘겨 읽으면서 ‘중재’나 ‘공처가’와 같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휘에 대해 엄마에게 질문하였다.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 해당 장면 - ‘중재’, ‘공처가’가 제시된 부분의 내용 - 을 그 자리에서 바로 떠올려 책에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해운이는 반복 독서

를 실행한다. 장은섭(201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복 읽기가 텍스트 내용 이해와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독서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반복 읽기를 통해 어휘 및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 나아가 작가 의도 이해에도 도움을 받고, 이해를 잘 하게 되어 자신의 읽기 능력에 자신감을 얻고, 독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해운 역시 모르는 어휘에 대해, 엄마의 도움(scaffolding)을 얻는 순간 ‘아!’ 하면서 반복하여 읽은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어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운은 반복 독서는 책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운이는 회기를 거듭할 때마다 독서의 방식이나 초점을 바꾸어 가며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4월 8일 참여 관찰 일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들의 반납 기한이 되었다. 아빠가 반납할 책을 책 캐리어에 넣고 있다.)

아빠: 다 반납하면 되지?

(언니와 거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해운이가 갑자기 크게 소리치며 벌떡 일어난다.)

해운: 안 돼! 잠깐만! [안 흔한 일기]는 빼고.

엄마: 아니야, 그냥 반납하지?

해운: (엄마를 슬쩍 보고 슬금슬금 웃으며 책 캐리어 쪽으로 걸어가서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오며 웃는다.) 이제 가자.

엄마: 너 책 빼놓고 왔지? 그냥 반납하자니까. 몇 번이나 읽었잖아.

해운: 아니야, 아직 몇 번밖에 못 읽었어. 아직 날짜 남았지? 더 읽고 반납할 거야.

[4월 29일 참여 관찰 일지]

(마을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해운이 좋아하는 일본 아동문학 시리즈 서가로 곧장 가서 5권을 꺼내 팔에 한 아름 들고 도서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다. 앉은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고 덮더니 다른 책을 집어 든다.)

엄마: 이 책들 다 대출할 거야?

해윤: (눈으로는 책을 보면서) 응.

엄마: 그럼 이 책들은 대출해서 집에 가서 읽고, 여기서는 다른 책 읽으면 되잖아.

해윤: (책에서 눈을 떼고 갑자기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 좋아하는 책은 열 번을
읽어도 재미있는 거야. 엄마 몰라? 다 빌려 갈 거야.

앞서 제시한 [4월 8일 참여 관찰 일지]에는 해윤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중 본인이 특별히 재미있다고 평가한 책을 반납 기한까지 좀 더 읽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미 ‘여러 번’ 읽었으니 반납해도 된다는 엄마와 ‘몇 번밖에’ 못 읽었으니 ‘아직 더’ 탐독하고 싶다는 해윤의 욕구가 상충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4월 29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도 독서에 대한 엄마와 해윤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다. 엄마는 ‘대출하지 않을 책’을 도서관에서 읽고 ‘이미 읽은’ 책은 대출하지 말자는 생각을 드러내는 한편, 해윤은 재미 있는 책은 도서관에서도 집에서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겠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책을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충분한 재미를 느끼기를 원하는 애독자 해윤만의 독서 방법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반복 독서 시 해윤이가 독서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초반 독서에서는 완독을 하지만 다회독이 진행될수록 그 읽기의 방식은 다양해진다. 반복 독서와 관련된 면담에서 해윤은 매번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책을 한 번만 읽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찾아서 읽는 사람이고, 나는 재미있었던 책을 다시 찾아 읽으면 내용은 다 알지만 내가 좋았던 부분을 찾아 읽는 거야.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좋아하는 부분만 읽기도 하고.

[2024.3.15. 면담]

여러 번 읽는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 내용이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되면서 ‘나

라면 이렇게 했겠다.’ 상상할 수 있는 책. 이런 책이 재밌는 책이지. 다시 읽으면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여기는 맘에 들어. 아니면 ‘내가 작가라면 이렇게 고쳤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지. 그러고 읽다 보면 여기가 최고로 중심 문장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찾고,

[2024.3.15. 면담]

해윤이가 동일한 책을 3~4회차 정도 읽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때그때 독서 방식을 달리 선택한다. 통독하기,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부분 찾기, 바꾸고 싶은 내용 상상하며 읽기,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 찾기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회독을 실천하고 있었다. 책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이나 특별히 공감한 장면을 찾아 집중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상황에서 주인공의 선택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라면 어땠을지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한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 자신이 작가였다면 어떻게 내용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며 작품을 분석적으로 읽는다. 백희정(2022)의 향유 독자 연구에서 ‘효원’은 “작가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작품을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독서가 시작되었다”(백희정, 2022: 238)고 한 바 있다. 또한 “‘나만의 생각으로 작가의 생각에 반기를 들기도, 공감을 표하기도 하고’, ‘작가가 내놓은 문장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즐거움을 느낀다.”(백희정, 2022: 238)고 자신의 독서 향유법을 언급하였다. 해윤 역시 나이는 어리지만 향유 독자로서 자신만의 작품 ‘재해석’ 행위를 통해 느끼는 독서의 즐거움을 반복 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해윤이가 좋아하는 책들에 대한 반복 독서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해윤이 책장이나 거실 책장에 있던 책들 중 ‘좋아했던 책’을 처분해도 좋다고 말하는 순간은 [8월 4일 참여 관찰 일지]에 나타난다.

[8월 4일 참여 관찰 일지]

엄마: 이제 정말 그리스로마 신화는 보내도 되지?

해윤: 아, 정말. 보내기는 너무 아깝고.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읽어서 질렸고.

엄마: 새 책 꽃을 자리가 없잖아. 결단 내려.

해윤: (10초 정도 망설이다가) 오케이. 보내버려! 어제 내가 해설해 주는 거 들었지? 그 정도로 완전 외웠으니까.

위 일지에서는 책꽃이를 정리하기 위해 ‘그리스로마 신화’를 빼도 될지를 묻는 엄마에게 해윤은 “안타깝지만 이제 해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외워버려서 보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전날 해윤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스·로마관을 방문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신화와 관련된 작품을 상세하게 해설한 바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신화 속 인물의 상징, 인물의 관계도 및 가계도, 그들 사이에 얹힌 이야기를 막힘없이 설명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로마 신화 책을 완벽히 소화했다고 느낀 것으로 보였다.

반복 독서가 끝나는 시기 혹은 좋아했던 책을 자신만의 책꽃이에서 빼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묻는 면담 질문에서, 해윤은 ①새로운 느낌이 더 이상 없을 때, ②눈 감고도 그 책의 장면들이 떠오를 때, ③책을 완전히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④더 이상 새롭게 읽어낼 것이 없다고 느낄 때를 언급했다. 이런 조건적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바로 책과 ‘작별’하는 순간이라는 해윤의 말의 의미는, 그 자신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책을 읽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책의 장면들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책의 하위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의 과정을 여러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다가 더 이상 자신에게 새로움이 없을 때까지 읽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윤이의 반복 독서는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필연적 방법이었고, 그 반복 독서가 타인에게는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해윤에게는 매번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었다.

4. 어떤 독자인가: 몰입과 중독의 경계

독서할 때의 몰입도 측면을 관찰한 결과 해운이는 독서를 할 때 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해석 세계를 확장해 간다. 해운이의 독서 행위의 빈도와 양상을 관찰하면서 연구진은 그러한 독서 양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넘나드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해운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자주 읽고, 깊이 빠져들어 읽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책을 깊이 읽는 시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해운이는 일단 독서를 시작하면 이야기에 폭 빠지는 아이이다. 책에 몰입하여 시간이 왜곡되거나 주변 자극이 차단되는 플로우(flow) 상태도 자주 경험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전술하였듯이 독자는 ‘몰입’하는 독서 경험을 통해 즐거운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긍정적 독서 경험이 긍정적 독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순영, 2006; 정옥년, 2007). 하지만 몰입 독서가 일상생활과 균형점을 잃고 과도하게 독서에 몰입하면서 주변과 갈등을 일으키는 중독적,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7월 28일 참여 관찰 일지]

(해운이 읽고 싶다고 말했던 새 책 전집이 도착했다. 책들을 안방 침대에 가져가서 베개에 기대어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다. 바로 옆에 언니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안경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읽는다. 처음 3권 정도는 안경을 주고받는 문제로 잠시 투닥거렸는데, 15분쯤 지나자 책 내용 자체를 읽느라 몰입하느라 안경은 사용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책만 읽고 있다. 양쪽 발 옆에 어지럽게 책들이 쌓여 있다.)

아빠: 이제 10시 넘었는데 자야지. 불 끄자.

해운: 잠시만.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한다.)

아빠: 언니 내일 피아노도 치러 가야 하잖아. 쿵쿨!

언니: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한다.) 응.

(해윤이는 이후 아예 대답도 없다. 독서를 하고 있는 행동에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시선도 책에 고정되어 있다.)

평소 해윤이의 취침 시간은 저녁 10시 전후이다. 보통 9시 30분부터는 취침 준비를 시작하는데 [7월 28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는 10시를 이미 훌쩍 넘긴 시간에 아빠가 잘 준비를 하자며 신호를 주었음에도 해윤이 성의 없이 대답만 한 후 다시 독서에 열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독서 중인 해윤이는 시간의 흐름을 자주 잊으며, 주변에서 말을 걸거나 큰 소리로 불러도 시선을 활자에서 쉽게 떼지 못한다. 반복된 호명 소리에 잠시 멍하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고 금세 책으로 시선을 돌리기 일쑤다. 해윤이는 책을 잡고 읽기 시작하면 엄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로, 읽고 있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해서 뒷장을 계속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자가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의미 세계 속에 들어가고 나아가 그 안에 깊게 빠져드는 현상(이순영, 2006: 408)”인 몰입 독서를 자주 겪는 해윤이는 이러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한편, 그 즐거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는 중독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11월 6일 참여 관찰 일지]

엄마: 이제 잘 준비.

아빠: 꿈쩍도 안 해. 내내 책만 보고 있잖아.

엄마: 너희가 계속 그렇게 책만 보고 할 일 안 하니까 엄마가 책이 싫어지려고 한다.

(그제야 해윤과 언니가 보던 책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면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양치, 세수를 끝내고도 다시 거실에 책 읽는 의자로 돌아와 언니와 나란히 앉아 읽던 책을 읽는다. 그 사이 엄마, 아빠가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소리가 들리자 해윤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친다.)

해윤: 엄마! 그렇다고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이것만 다 읽고 하려고 했어!

해윤이는 독서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 약속한 독서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날 해야 할 일이나 학교 숙제를 잊어서 하지 못하기도 하며, 아침 등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등 일상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다. 앞서 제시한 [11월 6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는 취침 준비를 하자던 부모의 말에 아무 반응 없이 독서만 하고 있는 해윤과 언니에게 화가 난 부모가 ‘책이 싫어지려고 한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동의 지나친 독서 몰두가 부모의 요구와 부딪히는 장면이다. 해윤은 ‘이것만 다 읽고 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으로 독서를 지속하고 싶은 욕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엄마는 ‘책만 보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니 까’라며 독서 외의 나머지 과제나 생활 습관에 대한 해윤의 부주의함을 지적하고 있다.

앞선 서술이 해윤의 독서 욕구와 일상생활의 부딪힘이라면, 이후 서술할 독서 현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다. 읽던 책을 특정 장소에서 끝까지 읽지 못한 경우, 길을 가는 와중에도 앞을 보는 대신 책을 마저 읽으려고 하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⁹⁾ 해윤이에게 책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일 만큼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책 읽기에 빠져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인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 만큼, 해윤에게 나타나는 몰입 상태의 극대화는 ‘중독적 독서’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9) 해윤이는 외출할 때 항상 책을 챙겨 가는 아이이다. 가족이 이용하는 차 안에는 책 박스가 구비되어 있어 이동 전 해윤이가 원하는 책을 준비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당한 두께의 책을 챙긴다. 여행을 길게 떠나는 경우에는 온라인 독서를 할 수 있는 태블릿을 챙긴다.

[7월 27일 참여 관찰 일지]

(해운이 엄마, 언니와 외출하면서 [후, 가우디]를 들고 나간다.)

엄마: 진짜 이걸 들고 가야겠어? 책도 크고 무거운데.

해운: 내가 들고 다닐게. 진짜 내가 들고 다닐 거야.

(들고 나간 책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읽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에 엄마 팔짱을 끼고 책을 읽으면서 걷는다.)

엄마: 길 걸으면서 책 읽으면 위험하잖아.

(잠시 책을 덮는 듯하던 해운이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손가락을 낀 채 들고 있던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 언니가 옷 갈아입기를 기다리는 동안 등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 책 읽기를 멈출 때마다 읽던 쪽수를 보거나, 소재목을 기억하거나, 손가락을 끼워두는 식으로 표시하면서 독서를 계속한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책을 다 읽었다.)

[7월 27일 참여 관찰 일지]에서는, 읽던 책이 재미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으며 길을 걸으면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계속 책을 읽다가 부모에게 제지당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 해운은 이날 외에도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10분을 참지 못하고 대출한 책을 펼쳐 들고 걷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횡단보도나 자전거가 마주 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책을 읽어 부모에게 종종 혼이 났지만, 잠시만 책을 덮을 뿐 독서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이내 다시 책을 펼쳐 들었다. 독서 ‘애독자’와 ‘중독자’의 경계를 오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번 시작한 책을 끝까지 읽으려는 완독의 의지와 함께 책에 폭 빠져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독서에 몰입하는 몰입 독서의 경험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해운이가 책에 몰두하는 시간과 에너지만큼 다른 어떤 것에 몰입했다면 ‘걱정의 목소리’가 더 일찍부터 강했을 것이다. 그 대상이 ‘책’이라는 이유로 해운이는 제재나 부정적 시선을 덜 받고는 있지만, 해운이만큼 하나의 행위에 몰입하고 오랜

시간을 집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중독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된다.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영상 중독 등에 대해 그 탐닉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반면, 독서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더 우세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해윤이가 책을 놓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침 등교 준비 시간, 하교 후 학원 시간, 취침 시간 등 시시때때로 ‘책을 그만 읽고 할 일부터 하자’며 부모가 해윤이의 독서를 중단시키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해윤의 아빠는 해윤이가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 보기 좋은 한편, 길을 걸으면서 독서하는 것처럼 안전을 무시하거나 독서에 밀려 학습이 소외되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다. 강연진(2018)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애독자 ‘우찬’은 독서의 전폭적인 지원자였던 엄마가 중학교를 기점으로 독서를 줄이고 학습을 해야 한다며 독서를 방해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해윤이는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해윤이의 부모는 중독적인 독서 행동에 대한 염려, 교과 학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윤의 독서에 학습과 관련 독서가 포함되기를 바라는 요구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책 ‘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기를 바라는 해윤의 독서 행동을 볼 때, 향후 해윤이의 가정에서 학습 소외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해윤의 독서 활동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차적인 문식 공간인 가정에서 중요한 후원자인 부모가 주는 부정적 피드백이 앞으로 해윤이의 독서 동기 및 실천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며, 해윤의 부모 또한 그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¹⁰⁾

10) 부모 면담에서, 책에 몰입하지만 중독되지는 않고, 주체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이지만 학습 관련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 읽기를 바라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모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이 연구의 참여자인 7세 해윤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 독서를 선택하는 애독자이다. 그는 꾸준한 독서 경험을 통해 생활 습관과 결합된 자신만의 독특한 독서 패턴을 만들어 향유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책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가정의 문식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스스로 독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는 초보적인 독서 향유자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주체적 성향이 강한 해윤은 무작정 아무 책이나 골라 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읽을 책을 선택하는 자기 선택적 독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 선택적 독서는 특정 장르와 주제에 대한 편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윤은 스스로 선별한 책들을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반복하여 읽으면서 꼼꼼한 읽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복적 읽기의 결과로 해윤은 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이르며,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기도 하였으며, 그 반복되는 독서 시기마다 새로운 내용,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한편 몰입 독자인 해윤은 독서 과정에서 몰입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지만 몰입의 정도가 지나쳐 일상생활을 방해할 지경에 이르는 중독적 독서가 우려되는 장면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독서 양상은 생활 습관의 안착이나 학습 독서를 요구하는 부모와 마찰을 빚어 독자가 독서의 '즐거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7세 애독자 아동을 대상으로 그의 다양한 시공간에서의 자발적 독서 행동을 관찰하여, 그 독서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독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영향 요인 및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애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지도의 방향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애독자의 행동 특성이나 프로파일 등을 분석할 때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내적 동기에 따라 스스로 책을 즐겨 읽는 초기 애독자들의 독서 행위와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누적되면 성인 향유자들과 초기 애독자들 간의 유사성 및 변별적 특성 등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7세 애독자 한 명의 사례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을 보완하여 향후 다양한 초기 애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 후속 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5.04.17. 투고되었으며, 2025.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5.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연진(2018), 「‘좋은 청소년 독자’의 경험 탐구-19살 우찬의 생애사 내러티브 탐구」, 『한국어 문교육』 24, 7-36.
- 곽노의·김도이·임은정(2011), 「통합형 숲유치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참여관찰연구」, 『한국초등교육』 22(3), 153-173.
- 김성혜·양수연·최영인(2023), 「학령전기 만 5세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에 관한 단기 중단 사례 연구」, 『화법연구』 59, 1-45.
- 김아영(2000), 『관찰연구법』, 파주: 교육과학사.
- 김아영·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하·이태문(2015),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김혜정·허모아(2021), 「청소년기 독서 수행 및 인식에 관한 실태 조사: 비독서의 이유와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9, 9-50.
- 김효리·정옥년(2022), 「성인의 독서 경험 내러티브에 나타난 독서의 즐거움 유형 탐색」, 『문화와융합』 44(9), 867-884.
- 박성석·민병곤(2020), 「읽기 동기의 자기결정성에 따른 독해력 차이: 중학교 1~3학년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7, 83-106.
- 박성석·허모아·제민경(2021), 「자기결정적 읽기 동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독서연구』 58, 227-263.
- 백희정(2022), 「‘향유 독자’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소유와 치유, 사유의 의미로서 독서 경험과 성장」, 『인성교육연구』 7(2), 223-245.
- 심다솜(2021), 「초등학생의 독서 동기 양상 분석: 자기 결정성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규설·김혜정(2021), 「독자 집단에 따른 독서량과 상위인지의 중단적 효과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6(4), 205-235.
- 오윤주(2019), 「독서 향유자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독서연구』 51, 211-250.
- 윤경훈·김혜연(2021), 「책 선택 방식이 독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교사의 도서 목록 내 책 선택 상황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62, 197-225.
- 윤준채·이형래(2007),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발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0, 161-190.
- 이동진(2017),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 고양: 위즈덤하우스.
- 이병기(20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11-332.

- 이삼형(2013), 「읽기와 독서 교육과정의 나아갈 길」, 『독서연구』 29, 9-33.
- 이송희(2017), 「참여관찰법을 활용한 지적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 일상생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영(2006),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6, 403-425.
- 이순영(2015), 「‘꼼꼼하게 읽기(close reading)’의 재조명: 독서 이론과 교수 학습 측면의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37, 39-65.
- 이순영(2019), 「독자와 비독자 이해하기 - 용어, 현황, 특성, 생성·전환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0(6), 357-384.
- 이순영(2021), 「청소년 비애독자의 현황과 지원 방안 연구: 2018-2020 독자가발연구의 결과 종합」, 『독서연구』 60, 63-92.
- 이순영·김주환(2022), 「대학생 독자의 독서 흥미 변화 양상 연구」, 『한국어문교육』 38, 69-103.
- 이지영(2019), 「아동·청소년기의 독서 정체 이유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독서 경험 회고담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2, 135-166.
- 이진영(2024), 「애독자 아동의 자발적 독서 양상 연구: 7세 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년(2007),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 발달」, 『독서연구』 17, 139-180.
- 정옥년(2017), 「평생독자의 성장과 교육적 지원」, 『독서연구』 43, 35-66.
- 정혜승(2014), 「창의적 문식 활동(literacy practices)을 지원하는 교실 공간의 특성: “출판사 사장놀이”와 “인형 집 놀이”를 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2), 243-267.
- 조용환·옥일남·박윤경·신현정·강경숙·홍덕기·오덕열·박선운·강성중(2022), 『질적연구 분야별 접근』, 서울: 학지사.
- 최영인(2014), 「설득 화법 집중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연구」, 『화법연구』 24, 271-310.
- 최영인·홍선주·박재현(2019), 「국어과 예비교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사교육연구』 58(2), 221-236.
- 한국독서학회(2021),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천』, 하남: 박이정출판사.
- 한다혜·이국희(2021), 「초등학생 때 독서 습관이 중학생 때의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 『감성과학』 24(3), 61-70.
- 홍선주·최영인·안지연(2024), 「교실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학습’의 실현 가능성 탐색」, 『교원교육』 40(3), 171-195.
- Patton, M. Q. (1987),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sie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 1277-1288.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야마구치 마유(2015), 『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되는 7번 읽기 공부법』, 류두진(역), 서울: 위즈덤 하우스(원서출판 2014).

초기 애독자의 자발적 독서 행동 양상 분석

— 7세 해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영·최영인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해력을 발달시켜 가는 단계에서 아동이 어떤 독서 경험을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양한 독자 특성에 따라 어린 시절 가진 독서 경험이 이후 독자로서의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만7세 애독자인 해윤의 독서 행위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2023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주 1~3회 관찰을 진행하여 전체 86회 관찰결과를 수집·분석하였다. 관찰 결과를 해윤의 독서 행위 양상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로 해윤에게는 양치하기나 머리 빗기 등의 일상생활 습관과 짝지어진 패턴화된 독서 습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고르거나 하는 독서 선택의 욕구가 강하였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들 또한 뚜렷하였다. 셋째, 해윤이는 특정한 책을 10번 이상 반복하여 읽고 책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해 매우 꼼꼼한 읽기를 진행함으로써 그 책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해윤의 독서 행위는 몰입과 중독의 경계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어 애독자, 아동의 독서, 독서 경험, 참여 관찰, 독서교육

ABSTRACT

Voluntary Reading Patterns of an Avid Child Reader

— Focusing on seven-year-old Hae-Yoon

Lee Jinyoung · Choi Youngin

This study investigates children's reading experiences during the development of early literacy, with emphasis on their impact on later reading abilities and attitudes. Considering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young readers, understanding their early reading behaviors is crucial for designing effective literacy education programs. Employing a participant observation approach, this study examined the reading behaviors of Hae-yoon, a seven-year-old avid reader, over a nine-month period from March to November 2023. Observations were conducted one to three times weekly for a total of 86 sessions. The analysis revealed four key patterns in Hae-yoon's reading behavior. First, she exhibited a highly structured reading habit intertwined with her daily routine and demonstrated a strong preference for specific reading times and spaces. Second, she showed a strong inclination to select books independently and actively engaged in behaviors to assert her reading choices. Third, she engaged in repeated reading; in particular, she revisited specific books more than 10 times and meticulously analyzed entire texts or selected passages, thereby deepening her comprehension and internalizing the material. Finally, her reading behavior fluctuated between deep engagement and an almost compulsive attachment to book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n how early reading habits determine literacy development and to the fostering of self-directed and immersive reading experiences in literacy education.

KEYWORDS Avid Reader, Children's Reading Behavior, Reading Experience, Participant Observation, Reading Education.